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3년 3월 8일 (금)

발행인 이종헌 편집 김종성

주 소 (705-803) 대구 남구 대명동 447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1. 대구지부 강사과정 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생명의 신비 (4) 놀라운 혈관망 - 정계현 | 2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46) 최수 삼손 - 이종헌 역 | 5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32) 예수님 안에서의 언약 성취 - 김무현 | 8쪽 |
| 4. 창조과학 칼럼 (2) 초고속 롤러코스터 - 김영호 저 | 10쪽 |

인사말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 발을 디딘 지가 어느덧 5여 년이 흘렀네요. 그 전에는 천지창조와 과학을 관련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당연히 여겼고 천지창조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과학적 법칙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와 젊은 연대를 믿느냐, 진화론과 오랜 연대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 삶을 나아가면서 얼마나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되는지도 보게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진화론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창조론적 사고의 틀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작은 선택의 차이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큰 그릇으로 빚어지길 기도하며, 우리 모두 3월도 더욱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회원 최 선 향 올림 -

1. 대구지부 강사과정 안내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전시관에서 3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제 1기 강사과정이 시작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창조과학 사역의 동역자들로 세워질 강사과정 등록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전시관

주소: 대구 남구 대명9동 447번지

문의: ☎ 070-4095-6420



혈액순환 - 놀라운 혈관망, 괴망(Wonder Net)

혈액순환계는 물질운송을 위하여 체내에서 운행되는 순환계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심장**으로부터 **몸**으로 가는 **체순환(systemic circulation)**과 **폐**로 가는 **폐순환(pulmonary circulation)**, 그리고 심장자체를 위한 **관상순환(coronary circulation)**으로 이루어졌고, 혈액성분의 성질에 따라 **동맥**, **정맥**, 그리고 **림프**가 있습니다. 동맥피가 심장으로부터 힘차게 뿜어져 나올 때는 압력이 세다가 점차 압력이 줄어들어 동맥 측 모세혈관 즉 정맥측 모세혈관과 만나는 지점에 가면 최소로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혈액성분**은 정맥측 모세혈관으로 들어가 흐름을 계속하여 심장으로 되돌아가지만 일부는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 조직액에 더하여 집니다. 계속 이렇게 스며들기만 하면 조직액이 너무 많아지므로 조직으로 스며든 만큼의 조직액을 회수하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을 림프관이라 하고, 림프관 내를 따라 흘러 들어온 조직액을 **림프액(lymph)**이라고 합니다. 림프액은 림프관을 따라 흐르다가 림프절에서 생산한 림프구를 추가하고, 어깨뼈 앞 안쪽으로 좌우에 있는 쇄골하정맥에서 정맥과 만나 합하여져서 심장으로 되돌아갑니다. 정맥은 압력이 약해서 혈액을 심장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간 동맥피와 최종적으로 심장에 되돌아온 정맥피의 양은 항상 일정한 것입니다.

림프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조직이 이를 배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모든 조직은 파괴되고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림프관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혈액이 온 몸을 순환하는 동안 **특정한 부위**에서는 온도를 바꾸어 흘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물 속에서 뜨고 가라앉은 것을 조절하는 부레는 앞 뒤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도록 중간이 잘록하게 된 풍선 모양입니다. 부레의 앞부분에는 혈관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망을 이루고 있으면서 산소를 분비하는 신기한 혈관망이 있습니다. 고기가 뜨고 싶을 때는 산소를 분비하여 부레를 부풀리고, 가라앉고 싶을 때는 뒷부분에서 산소를 흡수하며 부레의 부피를 줄입니다. 이 작용으로 고기가 원하는 대로 정교하게 부력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 신기한 혈관 망을 한국의 생물학 용어로는 **괴망(怪網)**, 일본에서는 **기망(奇網)**, 영어로는 **‘wonder net’**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이를 자체가 감탄사이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에서도 이와 같이 놀라운 혈관망을 볼 수 있습니다. 철새들을 보면 추운 날씨에 잠을 잘 때 되도록이면 피부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몸을 웅크리고 부리까지도 몸의 털 속으로 넣은 채 자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얇은 물 속이나 차가운 흙 또는 얼음 위에서는 몸통을 바닥에 대고 잘 수가 없으므로 한쪽 다리만으로 온몸을 받친 채 잠을 잡니다.

만약 이 놀라운 혈관망이 없다면, 철새들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만약 새의 몸통을 흐르던 더운피가 발로 그대로 내려가면 새는 동상에 걸릴 것이고, 발을 통과한 찬피가 그대로 몸통으로 올라가면 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체온이 낮아지고, 결국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얼어 죽은 철새는 없습니다.



학의 자는 모습 : 새가 한 발로 자는 이유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발목에 있는 괴망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창조과학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의 발목에는 위에서 말한 괴망이 있어서 일종의 열교환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끝에서 냉각되어 돌아온 정맥피는 이곳에서 동맥피의 열을 받아 따듯하게 데워진 다음에야 몸 안으로 들어가고, 이 과정에서 열을 방출한 동맥피는 발가락에 있는 피의 온도와 같이 냉각되어 발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철새들은 동상에 걸리지 않고, 동사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괴망의 존재 덕분에 이들은 생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진화는 수천만 또는 수억 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새들의 경우는 추운 날 하루 밤 사이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언제 시행착오적으로 진화할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포유동물의 수컷이나 사람의 남성에게서 고환 또는 정소는 음낭이라고 하는 별도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를 보면 난소는 복강 안에 있으므로 36.5℃에서 모든 기능 즉 여성호르몬과 난자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정소는 복강 같은 더운 환경에서는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이라고 부르는 남성호르몬과 정자를 생산하기에 적당한 온도는 33℃~35℃ 입니다. 체온보다 2~4℃ 정도가 낮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태아가 발생하는 도중에 난소와 같은 장소에서 발생을 시작한 고환은 음낭 내로 옮겨지는데, 이때 고환을 인도하는 작은 인대가 고환을 음낭 안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 음낭과 복강 사이는 칸막이로 막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 몸통의 열이 고환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가 덥거나 몸통 온도가 올라가면 몸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음낭이 늘어져 밑으로 처지고, 추우면 몸에 바짝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것은 음낭 내 정소의 입구에는 예의 그 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 식물의 덩굴 같다고 하여 만상총(pampiniform plexus)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망이 몸통에서 내려오는 더운 동맥피를 미리 식히고(precooling), 또 정소를 통과한 피를 그곳에서 미리 덥힘(preheating)으로써 결국 몸통을 흐르는 피와 정소를 흐르는 피는 서로 다른 온도에서 흐르도록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작에 차질이 생긴 남성은 불임환자가 됩니다. 이런 생리적 현상을 생각하면 남자는 폭이 넉넉한 팬티나 바지를 입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생명현상을 살펴볼 때는 항상 한 번쯤 한 가지 가정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이런 현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세월과 더불어 저절로 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창조주 하나님, 저희들 몸에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액이 흐를 수 있는 정교한 통로와 놀라운 혈관망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보혈로 사신 우리의 몸을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창조**

죄수 삼손

(Samson the Prisoner)

- 사사기 (Judges) 16:1-31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정복이 시작되었다.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을 이끌고 많은 큰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적은 결코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남아있는 가나안인들 사이에 거주했으며 그들의 이방 풍습을 일부 따랐다. 사사기 시대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심지어 지도자인 사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한다고 할 수 없는 예가 있다. 삼손의 삶에서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힘세고 강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들릴라로 인하여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망했다. 삼손의 비참한 종말은 그 시대의 징조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블레셋의 방백들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삼손이 셀 수없이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삼손을 두려워했다. 삼손이 블레셋인으로 짐작되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 이 나라의 방백들은 그들이 증오하고 두려워하는 적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이들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그녀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낼 경우 각각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했다. 이들 방백들이 제시한 것은 실로 엄청난 양의 돈이었다.

블레셋 땅에는 다섯 개의 핵심적인 도시가 있었다. 즉, 에크론, 아스돗, 아스켈론, 갓, 가사. 이들 도시는 각각의 “방백”이 통치하고 있었다. 이들 다섯 방백들이 모여 블레셋 정부를 이루었다. 이 사람들은 작은 문제는 그들 스스로 취급하였지만, 큰 결정은 다수결로 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체계는, 이제는 연약하고 체계화되지 않은 지파들의 그룹인 이스라엘보다 유리했다.

눈을 도려내다

왕과 기타 중요한 사람이 적에게 잡혀갈 것을 때는 종종 눈을 뽑혔다.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눈이 뽑혔다(삿 16:21). 그는 이미 블레셋 나라에 큰 손상을 입혔으므로 그들은 그가 도망갈 경우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베틀로 짜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을 약화시키기 원하면서 그의 머리를 베틀로 찼다(삿 16:14). 어떤 식으로 직조했을까?

옷을 짜는 첫 번째 단계를 방적이라고 한다. 목화, 아마, 양털 혹은 염소털로부터 자아낸 섬유를 굴대로 서로 꼬아서 실 또는 끈실을 만든다. 굴대는 작은 막대모양으로 생겼고 끝에 갈고리가 달렸다. 무게가 작은 물레바퀴가 섬유에 묶여있어서 빠르게 실로 꼬이는 것을 돕는다.

짜기가 시작되면 긴 줄의 실을 베틀에 묶어서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보낸다. 이것을 날실이라고 한다. 날실과 교차하여 다른 줄의 실을 놓는데, 이것은 여러줄의 날실 아래로 통과한다. 그러면 여러 줄의 실이 서로 밀쳐져서 큰 강도를 갖게 되며, 새로운 천조각이 만들어져 바느질을 기다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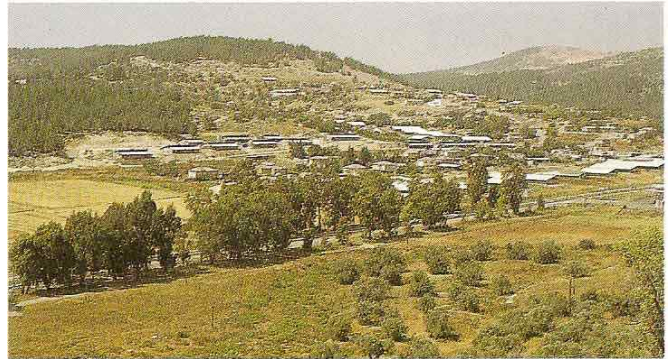
별로써 곡물을 갈다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강하고 힘센 사람이었다. 그가 사로잡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눈을 뽑고 모욕했다. 이 위대한 영웅은 갑자기 도움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의 품격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그로 하여금 곡물을 갈게 했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여자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다.

가사

가사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길에 뻗어있는 주요 대상의 통행로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80킬로미터(50마일) 떨어져 있으며 지중해에서 내륙으로 약 5킬로미터(3마일) 안쪽에 있는 그 도시는 남쪽에서는 이집트로부터, 북쪽에서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진군하는 군대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전략거점이었다.

남쪽을 바라보면 그 도시는 광대하고 건조한 광야의 모서리 근처에 위치해 있다. 가사에는 15개의 우물이 있는데, 이는 방금 그 도시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나, 사막으로부터 방금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머무르는 지점이었다.



<삼손은 소라와 에스다올 근처에서 자라났다.>

사사시대에는 블레셋이 가사를 지배했다. 이 도시는 블레셋 정부의 다섯 개 핵심도시의 하나로써 그곳을 통치하는 다섯 “방백”들 중 하나가 살던 곳이다.

삼손이 가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성문을 빠져 약 50킬로미터(30마일) 이상 떨어진 헤브론까지 옮겨왔다(삿 16:1-3). 나중에 삼손이 잡혔을 때 그는 그의 나머지 삶을 가사의 감옥에서 곡물을 갈며 보냈다(삿 16:21).

다곤 신전

다곤은 블레셋의 국가적 신이었다. 여러 도시에서 이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 이들 신전 중의 하나가 가사에 건설되었는데, 삼손이 그 도시에서 죄수로 있었다. 이 신전들 대부분은 단순한 설계에 따라 건설되었는데, 거대한 현관 기둥이 지붕을 주로 지지했으며, 그것은 통상적으로 진흙 혹은 돌로 만들었다.

내부에서 이방 제사장은 많은 것들을 다곤에게 희생물로 바쳤는데 심지어 거기에는 아이들도 포함된다. 각종 스포츠 행사나 죄수를 조롱하는 일 등이 종종 안뜰에서 행해졌으며, 그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붕에서 그것을 관전했다. 그런 시기 중의 하나 동안에 삼손은 기둥을 뽑아서 신전을 무너뜨렸으며 그를 놀려대던 블레셋인 3,000명을 죽였다.



<삼손은 마지막 날들을 가사에 있는 블레셋인들을 위해 곡물을 갈며 보냈다. 작은 맷돌로 곡물을 가는 것은 통상적으로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큰 맷돌은 통상적으로 동물의 힘을 이용했다. 삼손은 이와 같은 큰 맷돌을 갈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올리브 압축틀도 원리상 이와 비슷했는데, 그것은 다만 곡물을 가루로 가는 대신에 올리브로부터 올리브유를 추출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참조**

예수님 안에서의 언약 성취 (Fulfillment in Jesus)

6) 예수님 안에서의 언약 성취 (Fulfillment in Jesus)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13:1)

앞에서 살펴본 모든 예언과 언약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두 성취되었으며, 또한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네스북(Guinness Book of Records)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변호사(가장 높은 법정 승률 보유자)로 럭후경(Sir Lionell Luckhoo)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 바 있습니다. “나는 42년 동안 법정의 변호사로 일하면서 예수님의 법정과 부활사건에 대하여 계속 연구해왔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확하면서도 역사적인 증거들은 매우 풍부(overwhelming)하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서조차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고린도전서 15:19).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재림도 확실히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약 언약의 예수님 안에서의 성취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한 책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입니다. 이 장들을 정독하시고 그 언약들이 어떻게 성취되며, 어떻게 율법에서 은혜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매년 드리던 불완전한 제사에서 어떻게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바뀌는지 잘 정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예수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왔나이다. (히브리서 10:7)

"THEN I SAID, 'BEHOLD, I HAVE COME (IN THE SCROLL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TO DO YOUR WILL, O GOD.'" - Hebrews 10:7, NASB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10)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made holy through the sacrifice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 Hebrews 10:10, NIV

저(예수님)가 한 제물(십자가에 달리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14)

For by one offering He has perfected for all time those who are sanctified. - Hebrews 10:14, NASB

성경에 저(예수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사도행전 13:29)

"When they had carried out all that was written concerning Him, they took Him down from the cross and laid Him in a tomb. - Acts 13:29, NASB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관한 계시의 기록입니다(출애굽기 19장-23장). 그것은 순종의 맹세와 피의 언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출애굽기 24장). 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간섭하셔서 새언약을 약속하여 주십니다(예레미야 31:31-34, 32:40). 그것은 시간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질과 내용 면에서도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누가복음 22:20). 그 새언약은 믿음에 의하여 체결되며(빌립보서 3:9) 성령의 이끌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로마서 7:6, 8:4).

- DTS Bible Commentary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게서 오는 의를(*which is through faith in Christ, the righteousness which comes from God on the basis of faith,*) 얻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9, 새번역)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참조**

초고속 롤러코스터

(Superspeed Roller Coaster)

“어...어...올라간다..올라가...진짜 올라가고 있다구...봤어, 봤냐구...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라며 옆 사람 옆구리를 쿡쿡 찌러가며 모인 사람들이 모두 환호성을 터트리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어느 날 하담정이란 사람이 집채만 한 바위 덩어리를 손가락 하나로 가리켜 들어 올리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붕~ 띄워 놓았을 때, 주위 사람들이 나타낼 반응을 상상해 본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곧 무언가 속임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상식적으로 집채만 한 바위 덩어리가 아무 것에도 매달리거나 붙들려 있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애야, 딴 데 가서 놀거라

‘바보 아들이 학교에서 지구가 돈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아빠, 아빠 지구가 돈대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애야 그렇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고 딴 데 가서 놀거라”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애인에게 했다가 “혹...시.. 농담한 거면..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지 말어.. 재미없어”라는 대답을 들었던 가슴 아린 기억이 되살아난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고향별인 지구는 집채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에도 붙들려 있거나 지지대도 없이 그저 공중에 붕~ 떠 있도록 설계되어 창조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 제자리에서 팽그르르 돌아가는 자전이라는 것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시속 1,660 km의 속도)로 한다. 지구의 자전속도는 현재 운행 중인 비행기(여객기)의 평균속도인 시속 900km보다 빠르고, 소리의 이동속도인 1,200km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

또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번 크게 회전을 하는 공전을 하는데 이 속도는 자전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시속 107,060km에 달한다.

아마도 지금 지구 밖의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지구위에 있는 나를 본다면, 일초에 30km를 이동하고 일초에 400m를 가는 속도로 회전하는 돌덩어리 위에 앉아서 글 쓴다고 꿈지락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것이다.

무지막지한 속도의 롤러코스터

이러한 무지막지한 속도는 놀이공원의 궤도열차라고도하는 롤러코스터를 생각해보면 더욱 실감이 난다. 레일 위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의 일반적인 속도는 시속 60~80km 정도 된다. 이것은 시내에서 자동차의 규정 속도와 비슷한 정도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롤러코스터라고 알려진 미국 뉴저지에 있는 ‘킹다 카’는 시속 205km의 속도로 질주한다. 소심한 나는 시속 60km 속도의 일반적인 롤러코스터도 겁나서 잘 타지 않는데,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인 ‘킹다 카’는 공짜로 태워줘도 절대로 절대로 안타고 버틸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담정은 지금 ‘킹다 카’보다 8배나 빠르게 회전하는 돌덩어리인 지구 위에 앉아서 편하게 밥 먹고 일하며 차 한잔과 함께 사색에 잠기기도하며 하루에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에 젖어 들다보니, 누군가 달리기를 잘해서 100미터를 몇 초에 뛰었다거나, 내 차는 성능이 좋아서 속도가 얼마까지 나간다거나, 놀이공원의 새로운 기구의 속도가 엄청나다는 등의 이야기가 모두 시시하게 여겨진다.

공학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비행기나 롤러코스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아주 정교하고 다양한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잘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행기나 롤러코스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해진 길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커다란 돌덩어리인 지구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기만 하다. 허공에 떠서 매일 규칙적인 자전과 매년 정해진 공전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우리가 사는 지구와 태양계의 여러 행성, 그리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면서 동시에 피조물인 나란 존재의 미약함을 보게 된다. 앞으로 살아가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하늘을 한 번 바라보고 고개 숙여야겠다.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